

■ 광주 동구 미로센터 ‘오월, 종이로 빛은 시간’ 가보니

“계엄군에 쫓긴 망자 신발 우리가 신겨드릴게요”

엄정에 작가·참가자 등 5·18민주화운동 심상 공유
“한 맺힌 그날 기억하자”...16개 종이작품 완성 목표

“1980년 5월 계엄군에 쫓기다 잃어버린 신발을 종이로 만들어 보며, 그날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주 동구 미로센터는 지난 15일 오전 3층 스튜디오실에서 ‘오월, 종이로 빛은 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저변에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월의 기억을 되새기고 그 의미를 창작과 기록으로 이어가자는 의도가 담겼다.
이곳에는 엄정에 작가, 임아영 문화기획자, 참가자 8명이 종이로 신발·인형을 만들며 그날의 심상을 공유했다.
엄정에 작가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전시된 망자의 신발을 소개한 뒤 자신이 박스종이로 만든 하얀 운동화와 슬리

퍼 작품을 보여주며 “그들이 놓친 신발을 우리가 신겨드리자”고 말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은 5·18 당시 공포스러웠던 현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희준 (72)·김희정 (67·여) 부부는 “1980년 5월18일 당시 너무 무서워 아무 데도 못 나갔다. 건물 옥상에는 시민군이 숨어 있었고, 헬기가 날아다녔다”며 “상무관에는 흰 천을 덮은 시체 무리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김희정씨는 “7년 전 오월 해설사를 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지만 내가 겪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며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발설할 수 없



지난 15일 광주 동구 공동 미로센터 3층 스튜디오실에서 진행된 ‘오월, 종이로 빛은 시간’에 참가한 엄정에 작가(왼쪽 첫번째)와 참여자들이 종이 인형을 만들고 있다.

는 역사였다. 인형·신발 만들기로 다른 참여자와 함께 한 맺힌 그날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김희정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5·18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앞치마와 장갑을 착용한 8명의 참가자는 종이상자를 골라 재단하며 신발 제작에

열을 올렸고, 엄 작가와 임 문화기획자는 참여자 한 명씩 다가가며 작업을 도왔다. 운동화, 고무신, 꽃신 등 신발 형태가 어느덧 완성되자, 참가자들은 신문지와 소포지에 풀을 붙여 덧씌웠다. 이후 1980년 5월 당시 시민이 남긴 흔적과 감정을 종이 인형으로 표현했다.

엄 작가는 미리 만든 것을 쓴 조상 인형과 작은 인형을 보여준 뒤 “조상 인형은 작은 인형(5·18 영령)을 보살피는 존재다”며 “가엾은 영혼을 다독이고 위로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하얀색 도화지에 인형을 그린 뒤 곧바로 신문지를 감싸며 나만의 조상 인형과 작은 인형을 만들었다. 이들은 작품을 보며 각자만의 5·18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5·18 광주정신의 의미를 다시 느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내가 만든 인형과 신발에 당시 민주주의를 얻고자 희생했던 열망이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일부터 5월3일까지 진행된 ‘오월, 종이로 빛은 시간’을 통해 만든 신발과 인형 등 작품 16개는 미로센터 1층 전시실에 전시할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조선대 A학과 MT서 성희롱 파문

비난 커지자 학생회 재발 방지책 마련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MT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비난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해당 학생회 측은 사과문을 올리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내놨다.
16일 조선대학교 등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조선대 무역학과 MT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성적 용어를 사용하며 술게임(아싸·자복게임)을 했다”, “이성 선배가 술 취하고 허벅지 만져서 울고 싶었다. 첫날 안전교육을 할 때 분명히 성희롱 금지라고 공지했는데 아직도 놀라 잊지 않는다” 등의 내

용이 적혀졌다.
이와 함께 “술 게임 단계를 정하고, 입에서 입으로 술을 넘기는 모습을 봤다”면서 “신입생들 단톡방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많다. 꼭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피해 사실과 의혹이 빠르게 확산하자 학생회 측은 사과문을 올리며 입장을 밝혔다.
학생회 측은 “MT 중 일부 조에서 진행된 러브샷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아싸게임 도중에 부적절한 단어 사용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학생회 관계자는 “성희롱 방지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장애인식개선 체험하는 임택 동구청장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6일 광주 동구청 로비에 마련된 사방치기 장애 이해 OX퀴즈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택 동구청장과 주민들이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 “근무 태만 안돼”...조직 혁신 ‘시동’

각 급별 참여 ‘직원 속의 협의체’ 운영...실효성 기대

광주 서구가 실효성 있는 조직문화 개선과 내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16일 서구에 따르면 조직문화 수준 향상과 건전한 품도 조성을 위해 ‘직원 속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근무태도 및 책임의식에 대한 기준을 공문화해 소통을 통한 조직 내 갈등 해소방안 등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11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에는 전 직원 혁신참여와 업무개선을 위해 각 급별로 1명씩 참여한다.
앞서 지난 2일 서구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움’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우리 부서는 4월이면 업무량이 많아지는 기간으로 부서원 한 명당 500~600건에 이르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옆드려 자는 등의 업무 태만을 일삼는 동료 때문에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채우고 있다”고 푸념했다.
퇴직을 앞둔 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건전한 조직문화가 왜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이강 서구청장은 건강한 조직문

화,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위한 공문화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협의체 운영에 나섰다.
협의체 운영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현 실태 의견 청취·취합을 통한 조직문화 문제점 진단을 비롯해 합리적 사무분장 방안, 실질적 근행·인사제도 시행 등 제도 개선 분야 설정 및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익명 제보 창구 운영, 경고 및 조치 시스템 마련 등 제도 개선 중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세부적 협의가 이뤄진다. 끝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각 부서와 시행안 등을 협의 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SOCIETY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5:58 달출 23:22
예전 19:07 달진 07:58



광주	☀️	14~26
목포	☀️	13~20
여수	☀️	13~19
순천	☁️	10~23
구례	☁️	12~22
광주	☀️	12~22
임도	☀️	14~22
흑산도	☀️	11~18
고흥	☀️	10~22
진도	☀️	12~20

목포	밀물(고)	04:37 / 16:27
	썰물(저)	09:45 / 21:41
여수	밀물(고)	11:08 / 23:40
	썰물(저)	05:13 / 17:02

체중 고의감량... 항소심 무죄

만년필 ○현역법 복무를 회피하고자 체중을 고의 감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2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씨(2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2월까지의 병역 판정 검사에서 고의로 49.4kg까지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 이에 1심은 “A씨가 여러 차례에 체중을 줄여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병역 기피 또는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은·재은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